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주제 :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

| 일시 : 2022. 6. 23(목)~24(금)

| 장소 : 호텔 인터볼고 대구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일 정** : 2022. 6. 23(목) 15:00 ~ 6. 24(금) 13:00, 1박2일

◆ **장 소** : 호텔인터불고 대구(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 **주 제** :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

◆ **프로그램 일정**

6. 23(목)		
시 간(분)		내 용
14:30~15:00	30	등 록
15:00~15:20	20	개회식 • 개회사 • 신임·연임 총장 소개
15:20~16:20	60	[기조강연] 새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교협의 과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홍규 교수(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16:20~16:40	20	휴 식
16:40~17:40	60	교육부와의 대화 (교육부차관, 고등교육정책실 참여) / 좌장 : 흥원화 회장 - 대학 재정 / 대학 평가 / 규제 개선 방안
17:40~18:00	20	[정책소개] 국제 바칼로레아(IB)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18:00~19:00	60	만찬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 초청)

6. 24(금)		
시 간(분)		내 용
09:30~10:30	60	기능별 총장협의회 논의 - 한국신학대학교총장협의회 /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 한국여자대학교총장협의회
10:30~11:30	60	지역별 총장협의회 논의 - 강원 / 경인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대전세종충남 / 부산울산경남제주 / 서울 / 전북 / 충북
11:30~12:30	60	오찬 및 폐회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2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대구에서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학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난과 더불어 대학 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앞당겨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대학 총장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열악한 재정,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자율성을 저해하는 대학 평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급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 지역사회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 등 대학의 책무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평가와 규제를 개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은 물론, 부실·한계대학을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생의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쉬운 점입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여러분!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해이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정책은 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교협 설립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홍원화**

CONTENTS

Ⅰ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 Ⅰ

- I. 새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교협의 과제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홍규 교수,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II. 국제 바칼로레아(IB) 37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I

새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교협의 과제

황 흥 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고등교육 정책 방향

2022. 6. 23.(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 흥 규 교수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내 용 목 차>

- I.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 II.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국정과제
- III. 지금, 이것은 바로
- IV. 왜 고등교육인가?
- V. 기타의 제언

I.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1)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

□ 시대적 소명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사의 변혁기를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함

- 탈냉전 후 수십년간 형성된 국제질서가 깨지는 상황 목격
- 동북아 정세도 강대국간 관계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과학 산업 등이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방식에 전방위적으로 영향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
 - 청년세대의 기회가 제한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약화
 -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
 - 지속가능한 복지과 성장의 선순환 기대 약화
 - 균형이 부족한 대외정책으로 안보에 대한 위기요소 증가
 -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 악화

☞ **대한민국은 엄중한 시대의 갈림길에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대비해야 함.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국민의 요구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

→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 주거비용의 폭등 때문에 절망하는 서민들
-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
-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

☞ 국민은 이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
국민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음

(2)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

□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

- 국민의 염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
-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끔
-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

☞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

(3)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일 잘하는 정부
- 역동적 혁신성장
- 생산적 맞춤형복지
-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 글로벌 중추국가

□ 국정 운영 원칙

국익과 실용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

공정과 상식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

- 국정운영원칙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이자 판단기준
- 윤석열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그 원칙으로 삼음
 -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
 - 실용주의는 어떤 정책이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

- ▶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보완
- ▶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

(4)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어디서나 살기 좋은(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나. 핵심 메시지

- 0 국가경쟁력 회복, 선진국 도약
- 0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 국민 모두의 개개인의 삶 향상
 - 국민이 당면한 삶의 문제 해결·완화
 -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
- 0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용을 추구
- 0 자율과 창의, 자유와 행복
- 0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지방시대)

II.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국정과제

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나. 고등교육분야 국정과제

(1) 선거 공약

0 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겠습니다.

0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혁신하겠습니다.

0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 주도형,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목표) 디지털시대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적기 양성

- (디지털 인재양성)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
 -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 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분야 취업 희망 대학생 대상 대학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수요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대학의 자율적 혁신,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 **(대학규제 개혁)** 대학 자율적 발전 지원 방향으로 대학평가 개편,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도입 추진
-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 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중심 학사 유연화를 위해 융합혁신의 인재양성대학 선정·지원
 -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 제도적 지원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 → 고도화 → 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목표) 지역대학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대학·교육청 등과 연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 트랙 마련

17-1.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교육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3) 지역균형발전비전(2022.4.2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0 지역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0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0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중복적·자의적 평가로 교육기관이 획일화되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제도 개선

-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 중단 및 사업별 대학지원을 포괄적 대학지원으로 전환

0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제안, 지자체-대학-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0 지방대학 기반 [혁신 캠퍼스 타운] 조성

- 지방대학을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 거점화 및 양질의 혁신일자리 창출
집적지로 재구성

- 각 부처별 분산·분절화된 관련 사업 통합, 정주 여건을 충실히 갖춘
임계규모 이상의 창업·혁신 거점 조성(지자체 및 지방대학 주도, 글로벌 스케일 접
근)

0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이전·이식되는 임계규모 이상 수준의 혁신융합캠퍼스 지정 및 활성화

0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 지역대학내 로컬 전공 신설, 앵커 스토어 중심 지역 지역상권 활성화,
로컬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훈련기관 육성 등

Ⅲ. 지금, 이것은 바로

가. 정책의 기본 방향

0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 평등하게 보장
“모두에게 최선, 최고의 교육으로 모두를 인재로”

0 통제보다 자율(대학 구성원에 의한 대학자치 인정)
- 대학은 성인 집단, 대학 구성원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 규제, 반드시 그 효과성 검증을 거친다.

0 단기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

0 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 사람이 한다. **사람에게 투자**

0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규제가 아닌 교육의 **진흥, 조장, 지원**
- ‘형식적 합법성’을 뛰어넘어 ‘합목적성’을 추구

0 사람의 독자성을 인정하듯
고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개별적 특성과 사학의 건학 이념 존중**
- 중소규모 대학, 종교계 대학의 가치 인정, 그 구성원의 존엄성 인정과 존중

나. 대학의 희망사항(2022.6. 17. 대교협 발표)



다. 개선 요청 및 건의 사항(1)

0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 중단, 사업별 지원을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

(1) 시행중인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소급 적용)

- 연차 평가 폐지, 사업 기간 종료 시점에서 성과 평가로 전환
- 용도 제한 폐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손실보전적 일반지원으로 완전 전환
- 진단 탈락 대학 규제 (법률 근거 없이 차별 받은 해당대학 학생 규제 필요)

(2)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관련 규제 완화(소급 적용)

- 사업 목적·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사업 추진 방식·내용·사업비 사용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인건비 지출 허용 등)
- *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 목적 달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 * 사업기간 집행 영역의 연계 허용으로 특성화, 시너지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교육부도 계속 규제 관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

(3)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조건 조정

-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조건을 '법정 책정권내 결정', '교내장학금 학부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으로 조정
-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한, 대학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 (서울시립대 사례)

(4) 형식적 합법성에 치우친 감사 운영 개선: 대학을 행정기관으로 보는 관점 탈피

- *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5조 (감사의 준거) ①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 횡령·유용 등의 회계 비위, 차별,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이 아니고 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한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함

(5) 국립대학 회계 규제 완화(규칙 개정)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년도 범위내 편성 제한 폐지, 대학 자율 결정 인정
- 급여보조성 경비 금지 규정 완화, 급여보조성과 실비지급 등으로 다원화

(6) 사립대 국가유공자 등록금 100% 국가 부담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③ 사립인 대학등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 국립대학은 국가유공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나 사립은 50%만 부담.

이는 형평성에 반함. 성격상 법률 개정 없이도 국가보훈처 예산 반영으로 가능

(7) 사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 처리에서 제외

- 사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아님에도 사학기관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 이를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사립대학 재정 구조의 혼선 야기

(8) 정원 관리 방식 개선 및 계열간 교원확보기준 통합

- 모집정원 : 모집상한인원, 총정원 개념으로 전환
- 계열간 교원확보기준 통합으로 다양한 전공 설치운영의 탄력성 제고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9) 통계, 정보공시 목적의 학과 분류 체계 대강화

- 통계, 정보공시 목적의 학과 분류 체계가 변동성이 많고, 융복합 학과·전공이 개설되는 추세에 맞지 않은 실정. 학과 분류 체계의 대강화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

(10) 학습장(이동학습) 규제 개선(교육부, 건교부)

- 평생학습시대에 지역의 교육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접근성이 중요
- 이에 일정 권역 내에서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학습장 개설을 용이하게 허용할 필요

(11)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하여 빌딩형 캠퍼스 허용(교육부, 건교부)

- 기 설립·운영중인 대학에 대해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빌딩형 캠퍼스 설치 허용

(12) 대학 연구소의 교육조직화(고등교육법 개정)

- 부설기관으로 하고 있는 대학연구소를 학칙으로 교육조직으로도 할 수 있게 함
- 이를 통해 교육연구가 연계·융합되고, 소수의 인력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게 할 필요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라. 개선 요청 및 건의 사항(2)**(1) 국립대 교원 정원 책정권 교육부 이관(행안부)**

- 첨단산업분야 등 인력양성 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교원 확보 탄력성 필요. 그러나 교원도 일반공무원으로 간주,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를 교육부로 이관할 필요

(2) 재정 운영 방식 전환: 단년도 회계주의 특례 적용, 사업비 기금화 등 (교육부, 기재부)**(3) 산학협력단, 비법인체제로 전환(교육부, 산축법 개정)**

- 세무당국과 관계부처, 산학협력단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부담금 등 부과 실정
- 국립대에 대학회계 제도 등이 도입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제도는 유지하되, 비법인 체제로 전환하여 각종 부담을 해소할 필요

(4) 대학에 대한 국가 R&D 및 사업비에 원가 개념 도입(교육부, 과기부, 각부처)

- 직접 인건비 반영 등으로 대학과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성과를 내는 체제로 전환
- 참여교수의 수업시수 감면, 대체 인력 지원 등 연구 또는 관련 사업 담당자의 전념 여건 마련

(5) 대학의 교지·교사 활용에 대한 지방세 면제(행안부)

- 목적외 사용으로 보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향이나, 당해 활동과 수익금이 학교와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한 지방세 면제 조치 필요

(6) 대학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연구 역량 등의 강화(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 대학의 기능이 산학협력,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바, 대학의 정규 직종을 Technician, 연구원, 창업지도원 등으로 다양화 하고, 관련 사업비 등에서 인건비를 포함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사업의 역량과 효과성도 제고

(7) 법률에 근거한 대학에 대한 장기 재정 투자 보증(교육부, 기재부)

<고등교육 전반의 획기적 여건 개선과 대학별 특성화 신속 추진>

- 고등교육 전반의 여건 획기적 개선, 분야별·영역별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은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
- 이를 위해 조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요청됨
- 분야별·영역별로 경쟁력 있는 좋은 대학이 많아지고, 각 대학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면** 특정대학, 특정학과에 치중된 소모적 입시 경쟁이 줄어들어 초·중·고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
- 학부모들도 소모적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임

마. 대학에 대한 제언

(1) '자율 결정, 자율 책임' 체제 마련·운영

- 이미 자율성이 부여된 영역, 과연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나?
- 형식적 합법성을 뛰어 넘어 헌법에 따른 합목적성 추구 결단

(2) 대학 자체의 규제 점검 및 시정 시스템 운영

- 대학 스스로 행정기관의 틀에서 벗어나야

(3) 학생과 국가·사회의 요구 부응을 우선순위에

- 학교 운영에서 학교, 학과, 모집단위, 교직원의 이해 관계 보다 학생, 국가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4) 특히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 수업료 받는 대학, 학생 교육에 직접적 책임감을 가져야
- 학점 부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주는 선택 전공 적극 개설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5) 학생 참여, 학생 주도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 교수의 가르치는 활동 보다 학생간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6) 정규교육과정의 혁신 추구

-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된 각종 사업, 정규교육과정의 혁신으로 가야
 - 정규 교과의 교재 개발 지원
 - 교과 교육 방식의 혁신

(7) 구성원 간의 협업 체제 구축·운영

-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간 협력을 체질화
 - 직원도 교수 요원으로 활용

(8) 대학별 자율 결정에 의한 특성화 영역 선정 및 자원 집중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바. 반도체 등 인력수요 탄력적 교육체제 마련

(1) 재학생 대상 '산업 수요 선택 전공' 개설

- 전임교원 확보기준 적용 제외,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 실시도 추진(법적으로 가능)

(2) 학·석사 통합 과정 개설의 탄력성 제고

- 학·석사 통합과정의 석사과정 해당 학생은 별도 정원 간주, 개설 탄력성 제고

(3) 재학생 대상, 산업체와 '전공별·과정별 계약학과' 개설·운영

- 산학협력법 8조1항에 따라 '과정' 단위로도 계약학과 운영 가능

(4) 졸업자 대상 학점, 전공단위 편입제 도입

- 졸업자에게 학점, 전공 단위 편입학 기회 제공, 출신교 및 타교 편입학 허용, 별도 정원 간주
 - 수료증(나노 디그리) 발급, 성적 증명서, 학위증서에 추가 기재(타대학에서의 이수 포함)

(5) 산학협력법 7조의 특별과정에 대해 학점 인정(고등교육법 23조 개정)

- 대학에 따라 강점 있는 기술별로 특화된 특별과정 개설, 모두에게 개방,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6) 범정부 차원의 수요별 실험·실습 설비 및 교수 요원 확보 지원 체제 마련·운영

- 특히 첨단산업분야는 막대한 자금 소요로 선제적 공적 지원 없이는 대학 스스로 개설 사실상 불가

IV. 왜 고등교육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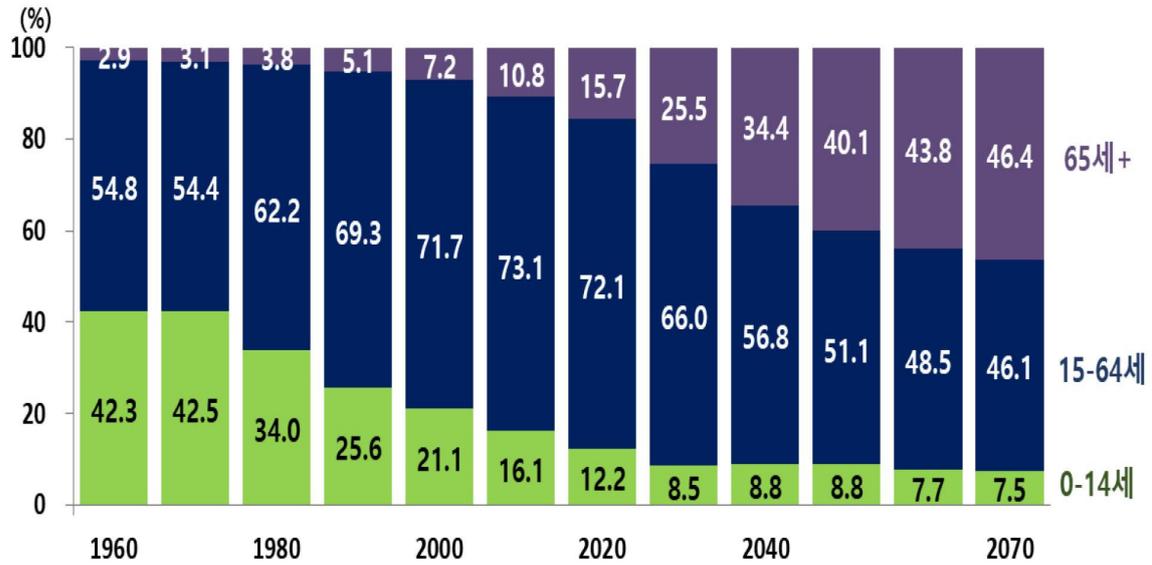
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유소년인구 변화(1960-2070년, 중위추계, %는 구성비)

연도	1960년	1970년	1972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총인구(천명)	25,012	32,241	33,505	38,124	42,869	47,008	49,410
고령인구	726 (2.9)	991 (3.1)	1,044 (3.1)	1,456 (3.8)	2,195 (5.1)	3,394 (7.2)	5,452 (11)
생산가능인구	13,698 (54.8)	17,540 (54.4)	18,603 (55.5)	23,717 (72.8)	29,701 (69.3)	33,701 (71.7)	35,982 (72.8)
유소년인구	10,587 (42.3)	13,709 (42.5)	13,858 (41.4)	12,951 (34.0)	10,974 (25.6)	9,911 (21.1)	7,975 (16.1)

연도	2016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총인구(천명)	50,801	51,836	51,199	50,193	47,359	42,617	37,656
고령인구	6,863 (13.5)	8,152 (15.7)	13,056 (25.5)	17,245 (34.4)	19,004 (40.1)	18,683 (43.8)	17,473 (46.4)
생산가능인구	37,038 (72.9)	37,379 (72.1)	33,813 (65.4)	28,521 (56.1)	24,189 (51.2)	20,660 (49.2)	17,368 (47.2)
유소년인구	6,899 (13.6)	6,306 (12.2)	4,329 (8.5)	4,427 (8.8)	4,166 (8.8)	3,274 (7.7)	2,815 (7.5)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 고령인구(65세이상)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그림]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증위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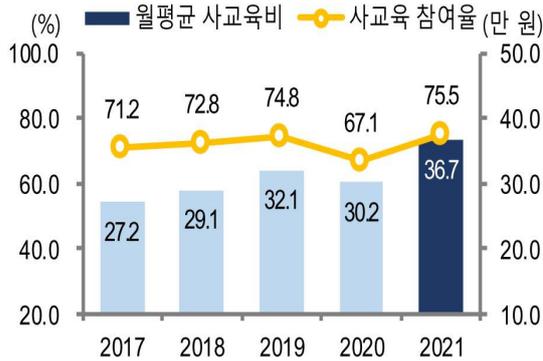
연도별 출생자수, 출생연도별 대학입학연도(천명, 1953~2021년)

연도	출생자수	대입연도	연도	출생자수	대입연도	연도	출생자수	대입연도	연도	출생자수	대입연도
1953	670	1972	1970	1,006	'89	1987	623	'06	2004	472	'23(고3)
1954	680	'73	1971	1,024	'90	1988	633	'07	2005	435	'24(# 2)
1955	702	'74	1972	955	'91	1989	639	'08	2006	448	'25(# 1)
1956	711	'75	1973	967	'92	1990	649	'09	2007	493	'26(중3)
1957	723	'76	1974	924	'93	1991	709	'10	2008	465	'27(# 2)
1958	758	'77	1975	874	'94	1992	730	'11	2009	444	'28(# 1)
1959	784	'78	1976	797	'95	1993	715	'12	2010	470	'29(초6)
1960	792	'79	1977	827	'96	1994	721	'13	2011	471	'30(# 5)
1961	804	'80	1978	752	'97	1995	715	'14	2012	484	'31(# 4)
1962	858	'81	1979	864	'98	1996	691	'15	2013	436	'32(# 3)
1963	877	'82	1980	865	99	1997	669	'16	2014	435	'33(# 2)
1964	901	'83	1981	867	2000	1998	634	'17	2015	438	'34(# 1)
1965	925	'84	1982	848	'01	1999	614	'18	2016	406	'35(유3)
1966	953	'85	1983	769	'02	2000	634	'19(대4)	2017	357	'36(# 2)
1967	986	'86	1984	674	'03	2001	554	'20(# 3)	2018	326	'37(# 1)
1968	993	'87	1985	655	'04	2002	492	'21(# 2)	2019	302	'38
1969	1,005	'88	1986	636	'05	2003	490	'22(# 1)	2020	272	'39
									2021	260	'40

꾸준히 증가하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2021년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75.5%,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7천원
 -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을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꾸준히 증가
 -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도 차이를 보임

<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



<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2021) >



자료: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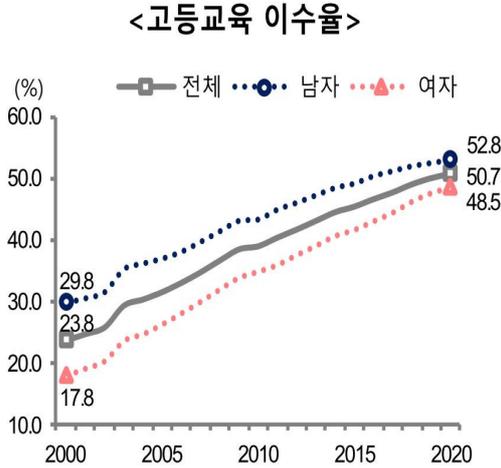
연도/소득수준	참 여 율				월평균 사교육비(% , 만원)			
	전 체	초	중	고	전 체	초	중	고
2017	71.2	82.7	67.4	55.9	27.2	25.3	29.1	28.5
2018	72.8	82.5	69.6	58.5	29.1	26.3	31.2	32.1
2019	74.8	83.5	71.4	61.0	32.1	29.0	33.8	36.5
2020	67.1	69.7	67.3	61.6	30.2	23.5	34.2	39.6
2021	75.5	82.0	73.1	64.6	36.7	32.8	39.2	41.9
200미만(만원)	46.6	54.5	43.7	36.2	11.6	11.5	11.7	11.8
200~300	57.6	64.2	54.9	47.0	18.0	16.5	19.3	19.8
300~400	70.0	76.4	66.6	57.9	25.3	22.6	27.7	29.6
400~500	77.2	84.5	74.0	64.5	33.2	30.1	35.2	37.7
500~600	80.3	88.0	76.4	68.3	38.1	34.8	39.8	42.9
600~700	83.5	89.5	82.0	73.1	44.4	39.4	46.4	52.1
700~800	84.9	90.5	84.3	74.4	48.6	42.7	53.3	55.7
800 이상	86.0	91.3	84.3	78.0	59.3	53.6	62.0	67.0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꾸준히 증가하는 고등교육 이수율

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 23.8%에서 2020년 50.7%로 증가



자료: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 OECD,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다시 확대

2020년 대졸자를 100%로 한 교육 수준별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중졸 이하 47.6%, 고졸 63.3%, 전문대졸 77.0%, 대학원졸 147.1% 수준

< 교육 수준별 임금 수준(%) >

연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2010	50.1	63.5	71.3	100.0	140.0
2015	45.1	62.2	76.3	100.0	148.8
2016	45.9	62.1	76.4	100.0	142.7
2017	49.0	64.5	77.0	100.0	145.2
2018	50.3	65.2	78.9	100.0	143.3
2019	50.4	65.0	79.1	100.0	143.5
2020	47.6	63.3	77.0	100.0	147.1

자료: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낮은 고등 공교육비, 높은 사적(학생, 학부모) 부담

고등 공교육비(\$, 2017)	학생1인당	정부 부담액(부담율, %)	사적 부담액(부담율, %)
OECD(평균)	16,327	11,102(68)	5,225(32)
한 국	10,633	4,041(38)	6,592(62)
한국/OECD	65%	36.4%	126%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 : 교원1인당 학생수 과다

연 도	(전일제/ 전임) 교원 1인당 학생수(명)		전임교원 확보율(%)
	OECD 평균	한 국	한 국
2020(2018)	15	29	78.3

()는 OECD 교육지표 기준연도임

대학간 격차 ⇒ (치열한) 입시 경쟁

구 분(2021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명)	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카이스트 등 4교	18.0	79,563
서울대	13.6	48,606
강원대 등 9교	19.9	18,508
강릉원주대 등 18교	26.4	15,340

수도권대학 쏠림 심화 ⇒ 지방대학 위기 가속

- '81년 졸업정원제 시행 → 정원 확대 → 수도권 쏠림 급속 진행
-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 학생 모집 어려움
- 박정희 정부 국책공과대학 육성 사업 이후 획기적 지방대 육성 사업 부재
- 2014년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정 투자는 미흡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지방대에 대한 획기적 재정 투자가 함께 이루어졌었다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14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로 대학 재정 악화

내역 (사립대 기준)	수입 결손액 및 추가 부담액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액('11년 대비 '19년) - 명목 5,612억원, 물가반영시 16,702억원 감소	16,702억원
입학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20년)	973억원
교내 장학금 추가 부담액('10년 대비 '19년) - '10년 11,074억원 → '19년 15,059억원	3,985억원
계	21,660억원

대학의 다양성·자율성, 사학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획일적 진단 평가와 차별적·규제적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정책의 지속 추진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고등교육도 헌법상 국민의 권리

[헌법]의 교육 관련 규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하게 하며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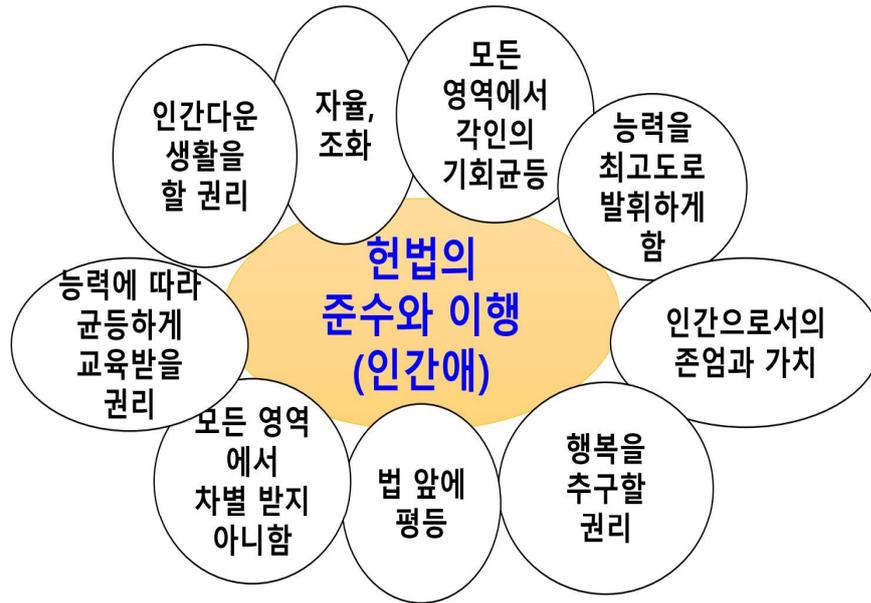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Martin Trow의 고등교육시스템 단계이행에 수반되는 변화

고등교육의 단계	엘리트형	대중형	유니버설 액세스형
해당연령중 학생비율	15%까지	15% ~ 50%까지	50% 이상
고등교육의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의 권리	만인의 의무
학생선발의 원리	중등교육 성적, 선발주의, 능력주의	능력주의 + 개인의 교육기회의 균등화 원리	만인을 위한 교육보장
대학진학의 요건	제약적 (가문이나 재능)	준제약적 (일정의 제도화된 자격)	개방적 (개인의 선택의사)
고등교육의 목적	인간 형성. 사회화	지식.기능의 전달	새로운 넓은 경험의 제공
고등교육의 기능	엘리트, 지배계급의 정신과 성격의 형성	전문분화된 엘리트 양성, 사회지도층 육성	산업사회에 적응할 국민의 육성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고등교육의 단계	엘리트형	대중형	유니버설 액세스형
커리큘럼	고도로 구조화 (경직된 구조)	구조화 + 탄력화 (유연구조적)	비구조적 (단계적 학습방식의 붕괴)
교육방법과 수단	개인지도, 튜터제, 세미나 제도	다수인 강의 + 보조적 세미나, 파트타임형, 샌드위치형 코스	통신, TV, 컴퓨터 등의 활용
학생의 진학·취학의 패턴	중등교육후 바로 진학, 탈락비율 낮음	중등교육후 바로 진학, 일시적 취학정지, 탈락비율 증가	입학이 늦었거나 중단된 성인·근로청소년의 진학, 직업경험자의 재입학 격증
고등교육기관의 특색	수준의 동질성	수준의 다양성, 종합제 교육기관의 증대	극도의 다양성 공통의 일정수준 상실
사회와 대학과의 경계	명확한 구분, 단혀있는 대학	상대적으로 희박화, 열린 대학	경계·구분의 소멸, 대학과 사회와의 일체화

출처 : 喜多村和之 著, 김도수 역, 『고등교육의 혁신』, 교육과학사 1995, 33-34쪽.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목역칼럼] '선진국 위기' 겪는 대한민국, 해법은?

이데일리, 이민주, 입력 2017.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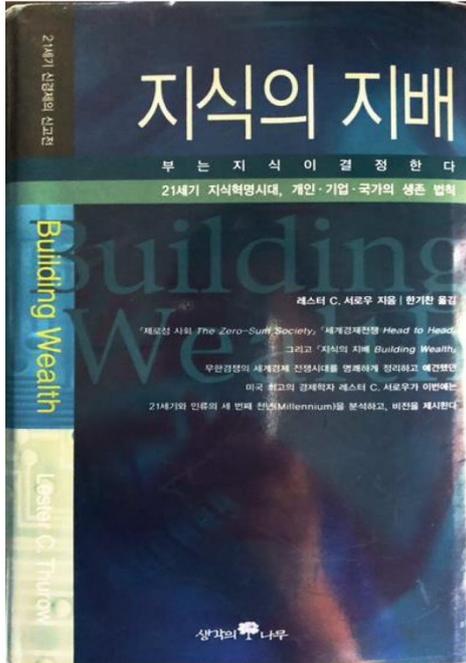
[송일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경영학]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지구촌이 시장경제로 통합되던 1990년대 후반 “21세기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선진국이 될 국가는 어디일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필자와 대담했던 지한파 석학 레스터 C. 서로우 MIT교수와 슈미트 전 서독총리 두 사람의 엇갈린 의견을 소개한다.

서로우 교수는 “선진국은 경제발전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선진국은 경제지표 외에 정치, 사회, 문화적 성숙이 동반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성장 이외에는 여러 면에서 야구로 말하면 마이너리그 급이다”라며 회의적으로 평했다.

슈미트 전 총리는 “**향후 2-30년 내에 한국은 ‘글로벌 탑 5 리딩 국가’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 교육열 때문이다. 국민 70%가 대졸자인 세계 최고의 지성 국가가 지구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강의 기적도 숫자가 아닌 경제성장을 견인한 성숙된 국민의 힘이다.**”라며 서로우 교수와 다른 주장을 피력했다.



초고도 지식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열린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기회 보장이 필수적



Lester C. Thurow (1938생),
지식의 지배(Building Wealth) (1999)

한기찬 역(생각의 나무, 개정판, 2004)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MIT 레멜슨 경영학 교수

MIT 슬로언스쿨 학장

「제로섬 사회」(1980)

「세계경제전쟁」(1992)

「자본주의의 미래」(1996)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지난 25년간 미국의 임금 변화를 관측한 결과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1세기 부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국민을 무교육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식 경제는 ~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지식의 창조에는 기능 분포의 최상단에 위치한 고도로 교육받은 창조적 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지식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고품질의 기능과 기능 분포의 중하위권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개인적인 교육투자는 그 본질상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의무교육의 창안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회적 발명이었다. 19세기 미국에서 (공공)일반교육이 창안되기 전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커녕 하나의 개념조차도 되지 못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교육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매사추세츠 주의 제재소 주인들은 교육받은 종업원이 문맹자와 함께 일할 때보다 교육받은 다른 종업원과 함께 일할 때 생산성이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은) 민간의 의사결정에 맡길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의무적이고 납세자가 재정을 대는 공공교육이 창안되어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창안을 타고 미국은 20세기 부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다.(호레이스 만의 의무교육 창안)

어떠한 사회도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교육 체계 없이 광범위한 교육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교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는 사회적 조직화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독일은 20세기 전반기 동안 과학적·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전을 기초로 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라틴어, 그리스어)에서 대중적 기술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데 미국처럼 발 빠른 국가는 없었다.

이러한 대중교육을 기반으로 미국은 비록 세계의 기술적 선도국은 아니었으나 20세기 초 세계 최대 부강국이었던 영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기업가들이 누렸던 자리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들의 것이 되었다. 19세기 초에 부를 누렸던 자리는 19세기 말에는 더 이상 부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미국 신흥 부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성공이 교육을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어했다.

카네기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독학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 도서관을 건립했다.

록펠러, 카네기, 이스트먼, 멜론, 이들 모두가 신설대학에 기부금을 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진단

1. 앨빈 토플러

0 한국 학생들,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씩 공부한다.

2. 존 나이스비트, 「메가챌린지」에서

0 개혁이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요란한 제스처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학교제도는 지속해서 창조성을 상실하고 있다.

3. 피터 로랑지 IMD총장(조선닷컴, 김덕한 기자 인터뷰 '02.12.21.)

0 획일화된 교육체제에서 창의성을 키워내지 못하고, 학생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4. 조벽 교수, 「인재혁명」(2010)에서

0 한국서 최고,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이류. 한국서 보통,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일류

0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리 둔재라는 라벨을 붙이고 포기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도 큰 비극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0 주입식 교육도 문제나 주입된 꿈이 더 문제다. 한국 교육은 정신의 빈곤을 부추기는 사(死)교육이다.

6. 이재경 교수, “한국교육의 망가진 GPS”(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6.5.26.)

0 한국교육은 망가진 GPS다. 모두 하나의 목적지 - 이른바 **일류대학 진학과 일류직장 입사를 위한 점수/학벌 따기 경쟁** - 를 바라보고 앞 다투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병목현상**이다.

7. 가수 한대수, “주입식 한국 교육 시스템 질려...(다시 뉴욕으로)” [조선.com 인터뷰 기사(2016.8.4)]

0 “딸이 초등 3학년인데 더 이상 한국에서 교육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천천히 성장해야 하는데 무조건 집어넣기에 바빠요. 부모들은 그걸로도 모자란지 학원만 대여섯 군데 보내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제2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37년을 뉴욕에서 살다 서울에 정착했던 한대수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 이유가 궁금했다)

8. 김도연 (전)포항공대총장, 조선에듀 인터뷰 기사(2016.7.12.)에서

0 **현재 (수능) 제도로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탄생시키기 어렵다.** 종일 다섯 개 답안 중의 하나씩 정답을 골라내고 ~. 현행 객관식 수능평가는 접어야 한다.

9.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조선.com 인터뷰 기사(2016.5.24.)에서

0 한국의 학교 제도는 다양한 아이를 하나의 교육과정, 하나의 수준, 똑같은 평가 방식으로 재단한다. 어떻게 공부 하나로만 줄을 세우느냐.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문제: 입시교육, 서열적 고등교육, 학벌 차별 당연시

일본에서는 고도의 질서가 경제적 창의성 결여라는 결과를 낳았다. 고등학생들은 중앙교육부가 작성한 어려운 졸업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암기한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은 방과후 학원에 가서 단순히 학교만 다니는 학생이 암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암기한다. **여기에는 창조적 사고나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런 졸업시험으로 일류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이 선발된다. 대학은 중앙에서 미리 정한 커리큘럼에 따른다. 새로운 지적 연구 분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그 결과 미국인들도 감탄하고 시기할 정도로 하위 절반 노동력의 숙련도는 뛰어나다. 그러나 상위는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지식의 지배, 287면)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배우는 방식 -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시험지옥'을 거치게 하는 방식 - 은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공포와 압박감에 짓눌려 계속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피터 드러커, 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1993), 295-296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세계의 고3-6] 일본, 대입 수험생활 우리보다 덜 치열(조선일보, 입력 1997.10.14.)

【동경=이혁재기자】일본과 우리의 고3은 비슷하다. **일본 역시 '학력사회'이며, 일류기업과 관료사회가 명문대학 졸업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입시열기는 우리보다 다소 약한 것 같다.

[지금 일본에선(455)] '스카이캐슬' 뺨치는 일본기업들의 명문대 사랑, 공공연한 학력필터에 취준생들 울분(뉴스투데이, 입력 : 2021.05.11)

【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유명 대기업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의 학력필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출신대학에 따라 누군가는 인턴쉽부터 기업설명회를 무난하게 거쳐 입사합격을 손에 쥐는 한편 누군가는 인턴쉽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넘사벽을 실감하면서 발길을 돌려왔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학력필터 중 하나는 입사 가능한 최저 레벨의 대학을 설정하고 그 밑으로는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과거에 채용했던 신입사원들의 출신대학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신의 대학명이 없다면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봤자 바로 탈락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다.**

'채용했던 대학이 와세다(早稲田)랑 게이오(慶應)밖에 없었고 역시나 탈락했다' / 아오야마가쿠인대학(青山学院大学) 문과생

주요 국립대학이나 와세다 또는 게이오대학 출신들은 너무나 손쉽게 통과하는 입사지원이 의아할 정도로 라고 이야기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브리짓 칼럼] 확산되는 일본경제 위기론

박종구 초당대 총장, 브리짓경제, 2022.6.3.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 명예교수는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G7 자리를 한국에 빼길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일본의 인구 감소를 지적하면서 일본의 소멸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난해 64만명 인구가 감소해 심각한 인구 절벽의 위험을 문제 삼았다.

인구 절벽이 가파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9%를 넘어 세계 최고령국가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되었다. 출산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가 2015~2060년 약 32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일극(一極)'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쿄의 출산율이 47개 도도부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일본의 인구 감소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면서 도농 격차,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기 어려운 양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V.기타의 제언

대교협, 전문대협 산하에 “산학연계지원센터”를 두자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교육부 기능 관련

0 규제의 적극적 폐지·완화 및 자율(자유와 책임) 체제 전환

0 고등학교 이하 업무는 “(가칭)지방교육협력협의회” 에 의한 공동 관장

- 구성 :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회
- “교육감협의회 사무처”가 교육부의 기존 관리적 업무와 동 협의회의 사무 수행

0 고등교육 관련 관리적 업무는 “(가칭)고등교육지원센터(신설)”,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위탁

- (가칭) 고등교육지원센터는 대교협 등의 수탁사업과 교육부의 관리적 업무 등을 수행

0 교육부는 “교육인재개발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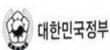
- 고등교육, 직업교육, 직장인 등을 포함한 평생생애교육과 인재 양성, 인력수급 기능 담당
- 또한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 설계·운영, 여건 조성, 예산 편성·조정 업무 담당
-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인력 양성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와 협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2001. 12.



머리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사람과 지식', 즉 인적자원을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최초의 국가계획으로서 앞으로 추진할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앞으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장기 과제이며 교육, 직업훈련, 연구개발, 고용, 복지, 산업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장관 회의체인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수립되었고,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요재원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시행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 민간주체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는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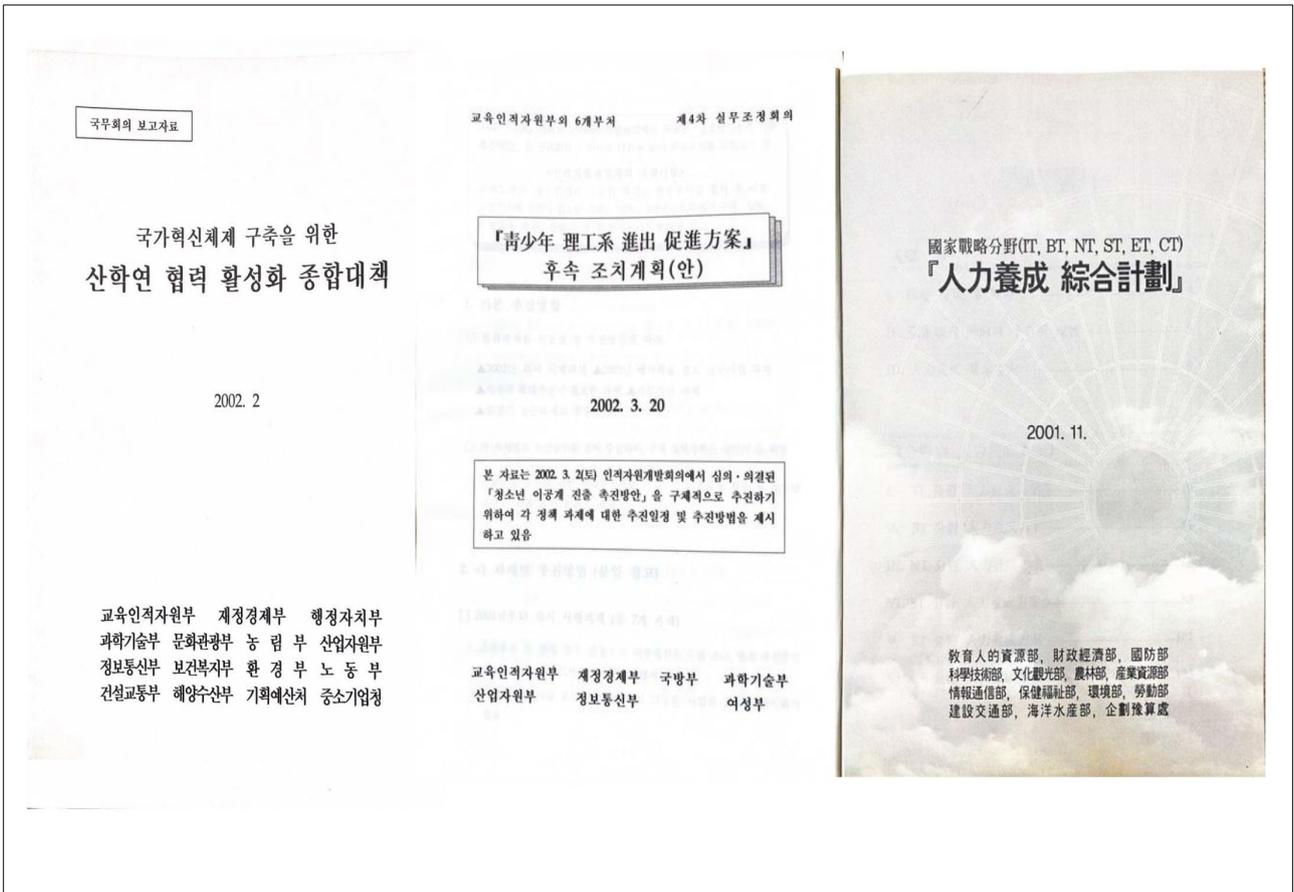
사람과 지식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인적자원 강국, 지식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教育人的資源分野 長官會議

國家人力需給 中長期 展望과 課題

2002. 12. 24(火)

教育人的資源部	財政經濟部	行政自治部	科學技術部
文化觀光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勞働部	女性部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統計廳	中小企業廳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확보 : 기초 학문(과학) 투자 필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정부가 기초과학의 진보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대적인 기술적 약진 (레이더, 원자폭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업에서의 연구개발(R&D) 역시 훨씬 더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정부는 기초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출을 장기 계획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간 기업에서는 투자하려 들지 않는 분야이지만 바로 민간 사업에서 대부분의 기회를 산출하는 도약이 이루어지는 부문이기도 하다.

* 출처 : 레스터 C. 서로우(저), 한기찬(역), 지식의 지배(생각의 나무 2004).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II

국제 바칼로레아(IB)

강 은 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학교, 미래를 보다

2022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생각을 깨내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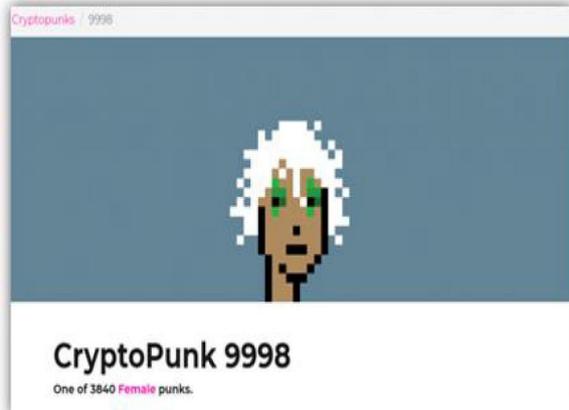
국제 바칼로레아(IB)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지식정보화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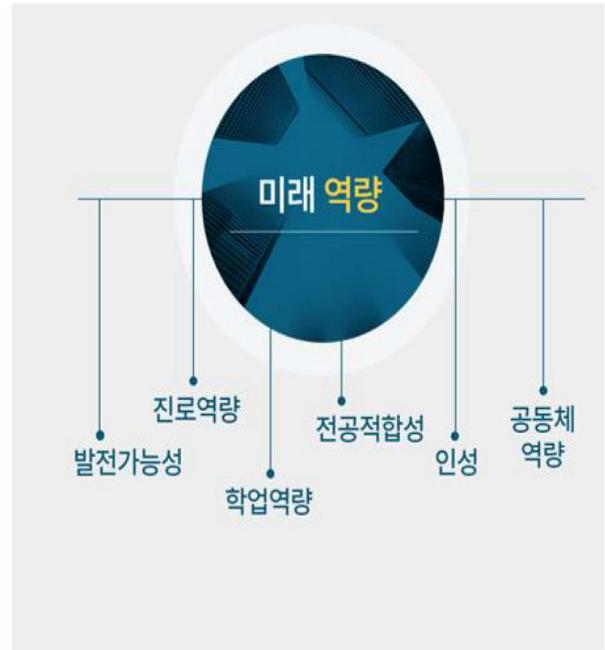
- 크리에이터/메이커의 시대
- 평생 교육의 시대

미래를 위한 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학생 주도성 *student agency*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



출처 : OECD Education 2030 (2018)

IB는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국제적 소양

세상을 향한 열린 자세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며 행동함



IB는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주도성

학생이 목소리를 내고
선택하며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원

발언권



선택권

주인의식

IB는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TL

Approach to Learning

학생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교육



IB는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개념 & 탐구
새로운 상황에 전이력
& 깊이 있는 이해력



지식의 구조(Erikson, 2008)



'탐구-행동-성찰' 사이클

IB는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폭 넓고
균형적이며
연계성있는
초중고 프로그램**



초학문적 주제 접근 - PYP(초)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YP 초학문적 주제



SAMYOUNG Programme of Inquiry

6가지 주제 안에 Key Concepts(핵심 개념), 학습자 상이 모두 포함

1
2
3
4
5

회년에 따른 계열성, 세부 주제 포함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우리 모두의 지구
<p>활동명 학교 공동체</p> <p>중심 아이디어 학교는 기능, 규칙,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이란 행위에 적응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기능, 연결,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가을과 추석</p> <p>중심 아이디어 계절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형성한다.</p> <p>핵심 개념 변화, 기능,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단면체와 볼링</p> <p>중심 아이디어 나의 의도, 느낌, 생각과 몸의 움직임은 나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p> <p>핵심 개념 형태,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물</p> <p>중심 아이디어 물은 환경에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p> <p>핵심 개념 형태, 변화, 원인</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학교의 규칙</p> <p>중심 아이디어 학교는 기능, 규칙,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이란 행위에 적응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기능, 연결,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자연의 날은 언제</p> <p>중심 아이디어 자연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형성한다.</p> <p>핵심 개념 변화, 원인,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가족 사일(이로) 사랑</p> <p>중심 아이디어 가족은 서로 다른 모습과 문화를 가진다.</p> <p>핵심 개념 형태, 책임,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지구마을 이야기</p> <p>중심 아이디어 문화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으로 표현된다.</p> <p>핵심 개념 관련,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는 노래 하기</p> <p>중심 아이디어 우리는 노래 하기</p> <p>핵심 개념 형태,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태양 속 우리</p> <p>중심 아이디어 태양은 우리</p> <p>핵심 개념 형태,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학교의 규칙</p> <p>중심 아이디어 학교는 기능, 규칙,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이란 행위에 적응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기능, 연결,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자연의 날은 언제</p> <p>중심 아이디어 자연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형성한다.</p> <p>핵심 개념 변화, 원인,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교장을 탐구해요</p> <p>중심 아이디어 학교의 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형태, 연결, 변화</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교장 과거로의 여행</p> <p>중심 아이디어 다양한 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반영한다.</p> <p>핵심 개념 관련,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1041 UOI 주제</p> <p>중심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p> <p>핵심 개념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활용된다.</p> <p>관련 개념 변화, 관점, 기능</p> <p>2015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p> <p>탐구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의 형태와 전환 탐색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발명 	<p>활동명 태양</p> <p>중심 아이디어 태양은 우리</p> <p>핵심 개념 형태,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학교의 규칙</p> <p>중심 아이디어 학교는 기능, 규칙,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이란 행위에 적응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기능, 연결,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자연의 날은 언제</p> <p>중심 아이디어 자연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형성한다.</p> <p>핵심 개념 변화, 원인,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자연이 살아있는 나</p> <p>중심 아이디어 자연이 살아있는 나</p> <p>핵심 개념 형태, 연결, 변화</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지역의 역사</p> <p>중심 아이디어 우리 지역의 역사에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다.</p> <p>핵심 개념 형태, 연결, 변화</p> <p>Current UOI</p>	<p>활동명 1041 UOI 주제</p> <p>중심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p> <p>핵심 개념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활용된다.</p> <p>관련 개념 변화, 관점, 기능</p> <p>2015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p> <p>탐구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의 형태와 전환 탐색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발명 	<p>활동명 태양</p> <p>중심 아이디어 태양은 우리</p> <p>핵심 개념 형태,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학교의 규칙</p> <p>중심 아이디어 학교는 기능, 규칙,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이란 행위에 적응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기능, 연결,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자연의 날은 언제</p> <p>중심 아이디어 자연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형성한다.</p> <p>핵심 개념 변화, 원인,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선생과 가치</p> <p>중심 아이디어 선생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관련, 기능, 변화</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는 기업인</p> <p>중심 아이디어 우리는 기업인</p> <p>핵심 개념 관련, 기능, 변화</p> <p>Current UOI</p>	<p>활동명 1041 UOI 주제</p> <p>중심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p> <p>핵심 개념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활용된다.</p> <p>관련 개념 변화, 관점, 기능</p> <p>2015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p> <p>탐구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의 형태와 전환 탐색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발명 	<p>활동명 태양</p> <p>중심 아이디어 태양은 우리</p> <p>핵심 개념 형태, 원인, 과정</p> <p>Current UOI</p>	<p>활동명 우리 학교의 규칙</p> <p>중심 아이디어 학교는 기능, 규칙,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이란 행위에 적응을 돕는다.</p> <p>핵심 개념 기능, 연결, 책임</p> <p>Current UOI</p>	<p>활동명 자연의 날은 언제</p> <p>중심 아이디어 자연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형성한다.</p> <p>핵심 개념 변화, 원인, 책임</p> <p>Current UOI</p>

행동(Action) - 배움과 삶 연계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YP 전시회



간학문적 접근 - MYP(중)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실제적 학습 - GRAS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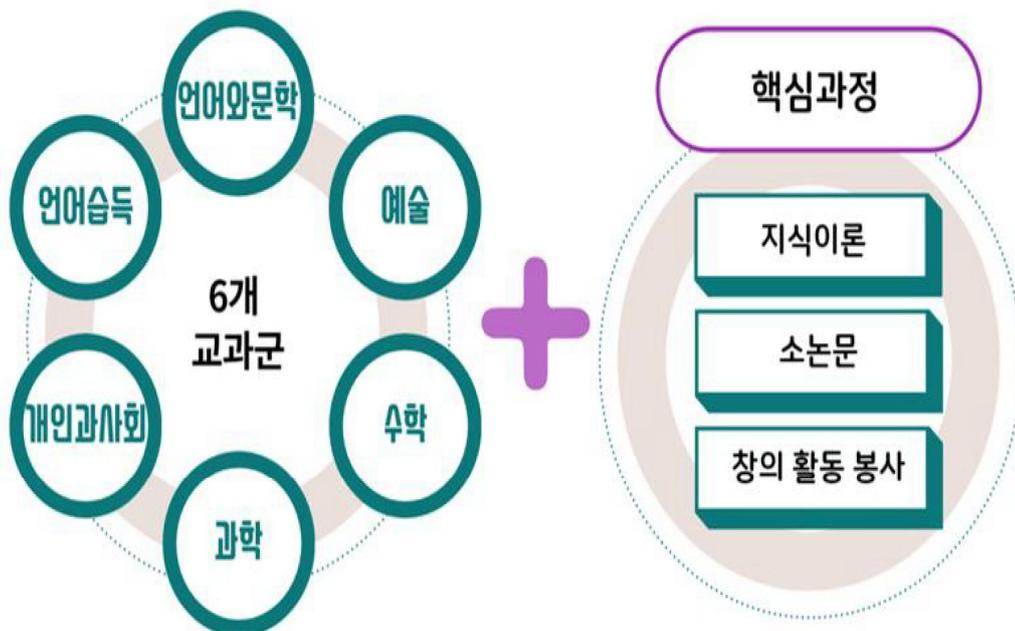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GRASPS 실제적 학습을 위한 수행 과제는



학문적 성장 추구 - DP(고)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B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이수

Pre-DP 과정 이수
학교 자체 DP 준비 과정



6개 과목 수강

교과군별 1과목씩, 표준수준 3개 + 심화수준 3개

핵심 과정 수강

지식이론, 소논문, 창의활동봉사

IB 디플로마 평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교과군	과목	내부평가(20~30%)	외부평가(70~80%)
Group1	언어와 문학	개별 구술	제시된 방향에 따른 텍스트 분석, 비교 에세이, HL에세이
Group2	영어	개별 구술	쓰기, 듣기 및 읽기
Group3	역사	역사 연구 에세이	사료기반 서술형, 지역제시 서술형, 세계사 주제제시 서술형
	경제	경제 해설 포트폴리오	확장형 서술형, 데이터기반 서술형, 정책 기반 서술형
Group4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개별 연구 보고서	필수주제 선다형, 데이터기반 서술형, 필수 및 옵션주제 자료기반 평가
Group5	수학 분석과 접근	개별 연구 보고서	서답형 및 확장형 평가, 계산기 활용 서답형 및 확장형 평가, 확장된 문제 해결형 문항
Group6	연극	연극 창작 협동 프로젝트	감독노트, 연구발표, 개인극작품
	시각예술	전시회	비교연구, 과정 포트폴리오
핵심과정	지식이론	지식이론 전시회	지식이론 에세이(1,600단어)
	소논문	-	소논문 (4,000단어)
	창의활동봉사	-	포트폴리오, 인터뷰, 학습성과 총족

(IB 언어와 문학) 수업의 차이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전통적 수업	IB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일부분을 다룸 ● 소설의 경우 교과서에 일부분만 실리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주로 요약된 줄거리로 공부함 ● 교사에게 작품 선택권이 없음 -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가르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전체를 다룸 ● 작품 목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번역 작품 목록 · 지정 작가 목록 : 소설, 수필, 시, 극작품의 4가지 유형 · (각 장르의 대표적 <u>작가명</u> 제공) · 관련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를 평가함 ● 교사에게 작품 선택권이 있음 - 교사의 교육과정 <u>구성권</u> 최대한 보장

(IB 언어와 문학) 평가의 차이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답하시오.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 중 적어도 두 작품을 참고해서 쓰시오.

2019 HL 기출 (소요시간 120분)

자존심/자부심은 실패와 자기 파괴 또는 성취와 자기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부한 적어도 두 작품에서 자존심/자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논하시오.**

작품의 배경은 종종 인물과 주제만큼 중요하다. 공부한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논하시오**

작가가 독자의 정서적/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 공부한 작품 중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분석하시오.**

문학 작품은 때때로 독자들에게 교훈을 준다. 어떠한 특성이 이것을 작품에서 완성되도록 하는지 공부한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논하시오.**

공부한 문학 작품 중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작가가 편견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기 위해 문학적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논하시오.**

독자들에게 구체적/실제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문맥, 언어,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부한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하여 **논하시오.**

(문학-수능특강) 평가의 차이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산 사이/ 작은 들과 작은 강과 마을이
겨울 달빛 속에 그만그만하게 / 가만히 있는 곳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오래오래 / 눈과 밭과 함께 / 가만하게 삽니다.
겨울 눈길을 지나며 /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 있는
시린 보릿잎에 얼굴을 대 보면 /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따뜻한 가슴만이 진경 녹을 수 있음을 / 이 겨울에 믿습니다.
달빛 산 빛을 머금으며 / 서리 낀 풀잎들을 스치며
강물에 이르면 / 잔물결 그대로 반짝이며
가만가만 어는 / 살밭김의 잔잔한 끝결과 이 아름
따를 향한 겨울 풀들의 / 몸 다 뉘인 이 그리움 / 당신,
아, 맑은 피로 어는 / 겨울 달빛 속의 물풀
그 풀빛 같은 당신 / 당신을 사랑합니다.

- 김진경 15-겨울, 사랑의 편지.

(중략)

편지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겨울이다.
편지는 간결함에 쓰인다. 길가에 피어 있는 풀꽃 한 송이나 겨울 들뜬 얼린
그리고 평평 내리는 하얀눈은 첫 눈송이들을 혼자 보기가 아까워 가장 간결
보여 주는 자기 고백의 글이다. 편지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자기의 얼굴인
이 가을 해 지는 들란을 보며 가장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의 답
신에게 오리라.

1. 윗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편지를 많이 쓰다 보면 글 쓰는 실력도 향상될 수 있겠는걸.
- ② 아침과 자기기만의 편지를 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
- ③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잘 쓰려면 우선 시로 바꾸어 써 봐야겠어.
- ④ 많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 그만큼 소통의 세계를 넓힐 수 있겠어.
- ⑤ 편지를 쓰다 보면 자신의 공부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시를 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춘 시절부터 시를 쓰지 않았다면 좋은 시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 ② 엄마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 ③ 연필과 책만으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으니 많은 경험을 쌓으십시오.
- ④ 시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간결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글을 꾸준히 쓰십시오.
- ⑤ 어떤 글이든 가치가 있으니 자신의 글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자기비하부터 버려야 합니다.

- 김용택, 『시가 된 편지들』

(IB 역사) 평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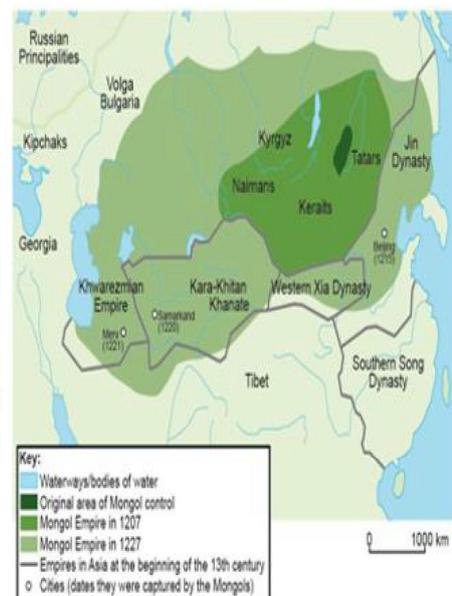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ource A Jean-Paul Roux, an historian specializing in Asian history, writing in the introductory study *Genghis Khan and the Mongol Empire* (2003).

Source B George Lane, a professor of the history of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writing in the academic book *Genghis Khan and Mongol Rule* (2004).

Source C An unknown author, likely a member of the Borjigids (the imperial clan of Genghis Khan), describes the lead up to the fight against the Naimans, in the record of the affairs of the Borjigids, often known as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c1228).

Source D A map of the Mongol Empire and its neighbouring empires in 1207 and 1227.



[Source: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19]

2019 HL 기출

(IB 역사) 평가의 차이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9 HL 기출

주어진 자료 A에서 D까지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관련 인물: 징키스 칸 c1200-1227 - 리더십: 권력형성, 경쟁세력 통합

(a) 자료A에 따르면 Temujin과 Togrul간의 충돌의 결과는 무엇인가?
(b) 1207년까지 징키스 칸의 세력에 대해 자료 D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료C의 출처, 목적, 내용을 참고했을 때, 징키스 칸의 권력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의 경우 자료 C가 가지는 가치와 한계를 분석하시오.

1204년 징키스 칸과 the Naiman과의 싸움에 대해 자료B와 C가 드러내는 바를 비교 분석하시오.

징키스 칸이 무력에 의해 권력을 차지했다는 의견에 대해 당신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자료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이용하여 쓰시오.

학생이 말하는 IB 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B DP 월드스쿨
학생 소감**

#경북대사대부고 #대구외고
#수학HL #역사HL

(IB 수학기분과 접근) 평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내부평가 (20%)	외부평가 (80%)		
		Paper 1	Paper2	Paper3
SL	개별 탐구 보고서	계산기 사용 금지 섹션 A: 간단한 서술형 질문 섹션 B: 필수 확장 서술형 질문	계산기 사용 섹션 A: 간단한 서술형 질문 섹션 B: 필수 확장 서술형 질문	
	20%	40%	40%	
HL	개별 탐구 보고서	계산기 사용 금지 섹션 A: 간단한 서술형 질문 섹션 B: 필수 확장 서술형 질문	계산기 사용 섹션 A: 간단한 서술형 질문 섹션 B: 필수 확장 서술형 질문	계산기 사용 필수 확장 서술형 질문 2문제
	20%	30%	30%	20%

(IB 수학기분과 접근) 평가의 차이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1. [Maximum mark: 21]

A large tank initially contains pure water. Water containing salt begins to flow into the tank. The solution is kept uniform by stirring and leaves the tank through an outlet at its base. Let x grams represent the amount of salt in the tank and let t minutes represent the time since the salt water began flowing into the tank.

The rate of change of the amount of salt in the tank, $\frac{dx}{dt}$, is described by the differential equation $\frac{dx}{dt} = 10e^{-\frac{t}{4}} - \frac{x}{t+1}$.

- (a) **Show** that $t+1$ is an integrating factor for this differential equation. [2]
- (b) Hence, by solving this differential equation, **show** that $x(t) = \frac{200 - 40e^{-\frac{t}{4}}(t+5)}{t+1}$. [8]
- (c) **Sketch** the graph of x versus t for $0 \leq t \leq 60$ and hence find the maximum amount of salt in the tank and the value of t at which this occurs. [5]
- (d) Find the value of t at which the amount of salt in the tank is decreasing most rapidly. [2]

The rate of change of the amount of salt leaving the tank is equal to $\frac{x}{t+1}$.

- (e) Find the amount of salt that left the tank during the first 60 minutes. [4]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

(수능 수학) 평가의 차이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2.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방정식 $f(x)=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
 (나) 방정식 $f(x-f(x))=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f(1)=4, f'(1)=1, f'(0)>1$ 일 때, $f(0)=\frac{q}{p}$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 수능은 속전 속결 : 선발의 목적 천천히 오래 생각하면...?
- 하나의 정답만 : 결과가 중요
- 과정은 평가받지 못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2번

(IB 화학) 평가의 차이

학생 평가 문항 샘플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한 학생이 0.100mol dm^{-3} 의 염산 수용액으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적정하여 그 농도를 알아내고자 했다.

수산화나트륨 4.00g을 사용하여 1.00dm^3 의 수용액을 만들었다.

산염기 중화반응 (화학1)

지시약으로 브로모티몰 블루를 사용하여 20.0cm^3 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표본을 적정했다.

(a) 수산화나트륨 4.00g으로 1.00dm^3 의 수용액을 준비하는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근거를 제시하여 요약하시오.

(b) (i) 자료집 섹션22를 활용하여 학생이 적정 중에 관찰하게 될 지시약 색상의 변화에 관해 명시하시오.

(ii) 학생이 산을 너무 빨리 첨가했다. 이것이 농도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근거를 제시하여 요약하시오.

(c) 주의를 기울여 용액을 준비하고 적정을 수행하였으나 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지 제안하시오

(수능 화학) 평가의 차이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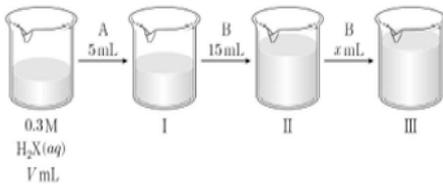
20. 다음은 중화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자료]

- 수용액 A와 B는 각각 0.4 M $\text{YOH}(aq)$ 과 a M $\text{Z}(\text{OH})_2(aq)$ 중 하나이다.
- 수용액에서 H_2X 는 H^+ 과 X^{2-} 으로, YOH 는 Y^+ 과 OH^- 으로, $\text{Z}(\text{OH})_2$ 는 Z^{2+} 과 OH^- 으로 모두 이온화된다.

[실험 과정]

- (가) 0.3 M $\text{H}_2\text{X}(aq)$ V mL가 담긴 비커에 수용액 A 5 mL를 첨가하여 혼합 용액 I을 만든다.
- (나) I에 수용액 B 15 mL를 첨가하여 혼합 용액 II를 만든다.
- (다) II에 수용액 B x mL를 첨가하여 혼합 용액 III을 만든다.



[실험 결과]

- III은 중성이다.
- I과 II에 대한 자료

2022년 6월 모평

혼합 용액	I	II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 농도의 합(상댓값)	8	5
혼합 용액에서 $\frac{\text{음이온 수}}{\text{양이온 수}}$	$\frac{3}{5}$	$\frac{3}{5}$

$\frac{x}{V} \times a$ 는? (단,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고,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시하며, X^{2-} , Y^+ , Z^{2+} 은 반응하지 않는다.) [3점]

- ① $\frac{1}{4}$ ② $\frac{1}{5}$ ③ $\frac{3}{20}$ ④ $\frac{1}{10}$ ⑤ $\frac{1}{20}$

IB는 어떻게 교사의 전문성 신장?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교사 협업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바람 불 때만 돌아가는 풍차'가 아닌 능동적 협력이 필요

IBEN – IB Educator Network



IBEC

교사가 말하는 IB 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B는 전체 숲을 봐야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사고부터**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B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과학 수업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IB 학교 자율, 협력적 문화 조성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협력적
학교 문화
자율성/전문성



IB 학교 문화 비교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B MYP 학교 풍토는 국제 비교 연구 평균보다 높아



김혜진 외(2020)교원 및 교직원경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직원 의사결정 참여(2.87), 공동책임 문화(2.83), 협력적 학교 문화(2.90), 교수학습에 대한 공유된 믿음(2.94), 교직원의 새로운 제안 권장(2.83)으로 나타났음.

IB MYP 학교 교사는 7개 영역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교 풍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자료 출처: 대구미래교육연구원, 2021. 교육정책연구 결과 보고회 발표자료

학부모가 말하는 IB 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B DP 월드스쿨 학부모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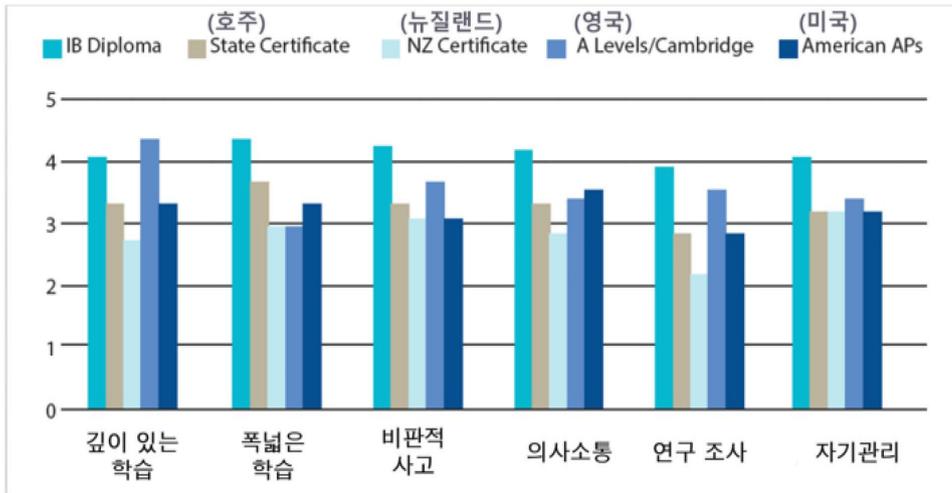
경북대사대부고

IB DP 학생 역량 비교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B DP 이수 학생의 학업 준비도 비교

- 대학에서 인식하는 프로그램별 대학 학업 준비도 비교 (호주 및 뉴질랜드)



(출처: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2007)

이제 우리가 함께
퍼즐을 맞추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발행일 : 2022년 6월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소 :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전화 : 02) 6919-3800

홈페이지 : <http://www.kcue.or.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2090-1151(代)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비매품/무료

93370



9 791166 961175

ISBN 979-11-6696-117-5